

제 202회 일본 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 한국의 비혼자가 본 비혼자대국 일본 : 부모돌봄을 중심으로

강사 : 지은숙(池恩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시간 : 2016. 11. 08. 화. 12:00 - 14:00

2016년 11월 08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202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여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비혼자가 본 비혼자대국 일본 : 부모돌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인 지은숙 발표자가 강연을 진행하셨다. 지은숙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도쿄에서 2년동안 자료 조사를 하였다. 현재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발표자는 현대 일본사회를 비혼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가족관계와 젠더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그러나 비혼화와 이에 수반된 사회변화는 비단 일본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비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혼자녀가 부모돌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부모돌봄의 규범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일본이라는 창을 통해 비혼자와 부모돌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현실과 변화를 가늠해 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비혼화의 특징은 1980 년대를 기점으로 만혼이 생애미혼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만혼화가 되고 있다. 1990 년대 이후에는 장기불황으로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이 저하하면서 남녀모두 생애미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율 혹은 혼외자 출생률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것은 비혼화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양산했다.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일본 정부에서 85 년을 기점으로 논의했지만 여성들에게 부담을 다 떠넘기고, 보육소 대기아동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만두고 나중에 복직할 때 파트타임직으로 바뀌는 등 여성들의 고학력이 이어지지 않은 것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리하면,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의 전후체제에 진입 안하거나 못하는 이들이 증가했고, 젠더개혁을 통한 포스트 전후 체제 전환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비혼자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발표자는 무엇보다 고령화에 따른 부모돌봄의 부담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일본은 이례적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모 돌봄 걱정이 큰데, 그 이유는 서구에 비해서 가족주의가 강하고, 한국에 비해서 탈물질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전문직을 하고 있어도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은 돈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세대의 경제적 차이가 큰데, 일본은 고도성장 세대인 부모세대의 자가 소유율이 높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부양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의 비혼자녀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결국 일본의 비혼자녀가 부모돌봄자화 되기가 쉬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일본 사회는 이제 돌봄의 시대가 되었는데 비혼 여성은 부모돌봄의 최적합자가 되었다. 기혼자녀는 가정을 돌보고, 비혼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이중 구조가 출현하였다. 다른 결혼한 형제처럼 돌보기 어렵다고 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혼자녀의 부모돌봄자화는 미봉책일 뿐이다. 비혼자녀의 사회적 주변화를 심화시키고, 특히 부모돌봄의 최우선순위인 비혼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위치와 맞물려 빈곤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중하계층의 비혼돌봄자 여성들은 사실상 예비생활보호대상자들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재생산 불가능한 임시 방편이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 비혼자에게 주는 시사점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혼화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남녀 모두에게서 비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비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경제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또한 한국은 압도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의 비혼율이 높다. 이에 따라 며느리 돌봄이 퇴조하고, 친자녀 돌봄의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장남과의 동거가 급감하고 있고 노인단독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의존적 복지시스템과 저출산 담론의 작동, 세대간 자산 격차는 비혼자의 부모 돌봄자화를 촉진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직 부모를 돌볼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노인 돌봄을 자신의 문제도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혼여성의 생애 이슈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인구변화로 볼 때 현재 30~40대 비혼자의 목전에 놓인 생애이슈는 노후가 아닌 노인 돌봄이다. 비혼자의 돌봄 문제는 사회적 의제화하기 어렵다. 비혼자의 가족구성권, 거주권과 더불어 가족돌봄의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고령화와 돌봄수요의 증가 등 일본의 사례가 한국 비혼자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질의 응답>

질문 : 생애 미혼율의 한·일 비교 차트를 보면, 일본, 한국 모두 미혼율이 남성이 여성의 2배인데 왜인가요? 대부분 남녀가 결혼하는데 왜 남자의 비혼이 이렇게 높나요?

답 : 남성의 비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비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것은 젠더간의 가부장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자한테는 생존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너무 빈곤한 여자들에게는 비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혼하고 관련되지 않나요? 남자 같은 경우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젊은 여성과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답 : 원래 사실 여성의 비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남자가 두 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 : 조사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답 : 44세부터 54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질문 : 그 시대의 인구대비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답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신기합니다.

답 : 그렇습니다.

질문 : 먼저 발표 자료에 있는 표에서 '전후체제'와 '포스트전후체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NHK 방송을 보면 '오모이야리(思いやり)'를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착한 일본인이라는 일본인의 자기 아이덴티티 기제가 이런 비혼자들에게 자기 직업을 내놓고서 부모들 돌봐야한다고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시스템을 활용한다거나 한국처럼 돈으로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 우선 '전후체제'를 만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산 평등주의, 즉 전부 일제히 두 명씩 낳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주부화입니다. 여성의 주부화와 재생산 평등주의라는 전후 가족체제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197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전체가족에서 과반수이상 차지했던 적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의 전후체제라고 부르고 그것이 전체를 대표했다고 하나면 표준가족이라는 것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 방향을 표준가족에 맞춰서 제도 전체를 정비화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가구 전체에서 5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후체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 없이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전후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70년대 말부터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가족중심의 질서에 대한 회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포스트전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트전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혼화, 저출산, 고령화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앞부분 전후체제에서는 핵가족화가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포스트전후에서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다양한 체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전시대의 정책을 바꿨어야 했는데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 했습니다. 즉 대안이 구축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떠한 질문에는 저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돌봄에 대해 주변사람들을 의식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압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국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 일본사람이 심하게 신경 씁니다. 어떨 때 그런가 하면 부모를 집에서 돌보다가 시설로 보낼 때 본인이 결정 못하고 남이 결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입증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사람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런 것은 일본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앞에서는 '비혼' 뒤에서는 '미혼'이라고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 저도 비혼과 미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비혼율이라는 것은 제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가 통계에서 비혼 통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혼율입니다. 비혼이라는 용어가 미혼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일본에서는 미혼 대신 비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답 :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미혼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사람들은 '싱글'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관청에서는 가끔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문 : 자료 3-2에 보면 저출산이 고령화 촉진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해서 고령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 : 그렇습니다. 고령화의 제일 큰 원인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인구 전체 비율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높아진 것입니다.

질문 : 고령화에는 수명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저연령층의 감소 등이 있을 텐데, 상대적 비중이 어떤지는 궁금합니다.

답 : 그 부분은 한국 일본 모두 명백한 것이, 수명 장수화보다는 저출산이 훨씬 더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미국과 유럽은 비혼화 양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답 :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비혼

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동거율, 혼외출산율이 높습니다. 아시아의 양상과는 다릅니다. 그쪽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애 비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의 싱글 증가 및 비혼화 양상은 동아시아에서 산업화된 국가의 양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싱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 비혼자녀의 부모 돌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애비혼자 중에서 부모 돌봄으로 가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 : 사실 그것이 비율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가족돌봄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통계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계내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 비혼부터 시작해서 고령화문제, 복지문제, 돌봄의 문제, 외국인의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깊이 얽혀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우울하다고 느낀 것이 일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울합니다. 또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울합니다. 결정적으로 우울한 것은 돌봄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안적인 부분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의 대안적 논의보다는 비혼자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신 것이 섭섭했습니다. 대안적인 모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주세요.

답 :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델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출산 일 때 사회가 견딜 수 있는 모델입니다. 비혼자가 증가했을 때 비혼 당사자에 대한 모델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비혼자의 경우에는 부모 돌봄의 부담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나눠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함정은 여자들에게 일도 시키고 아이도 기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자를 더 착취하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돌보지 않을 권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히 말도 꺼낼 수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패륜으로 받아진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